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인구



28

인구추이

인구감소 추세에도 충북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30

인구동태

출생률, 혼인율 저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급

32

인구이동

좋은 일자리를 가진 매력도, 충북!

인구추이

1963년 **148**만명

1990년 **139**만명

2015년 현재 **161**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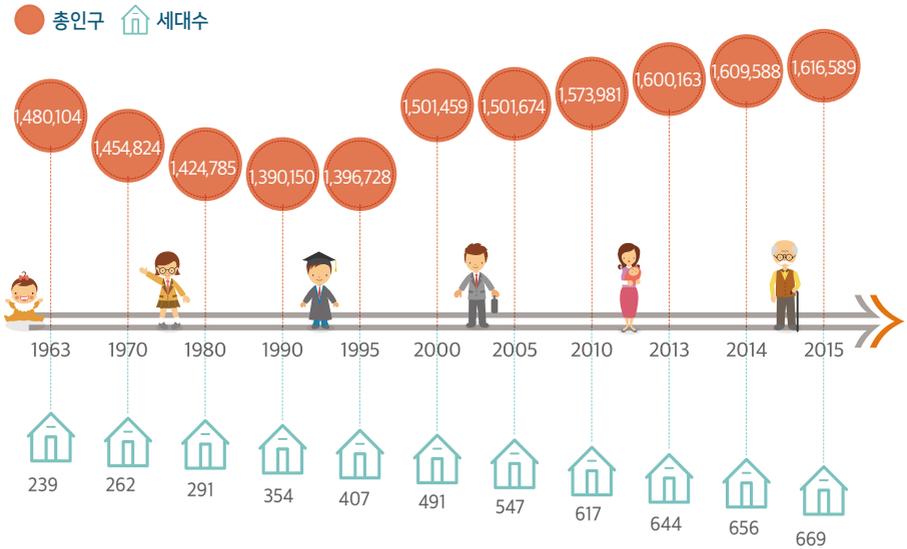


인구감소 추세에도 충북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충북의 인구는 1963년 148만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 감소세를 기록해 1990년에는 139만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기록해 2015년 현재 16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충북의 인구증가는 반도체, 태양광, 바이오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결과로 판단되며,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핵가족화, 1인 가구 비중 등의 증가로 충북의 인구수 증가보다 더욱 빠르게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특히, 음성, 진천 등) 등에 따라 등록 외국인 수의 증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인구는 1,48만 104명에서 161만 6,589명으로
세대수는 23만 9,624 세대에서 66만 9,503 세대로 증가



단위 : 세대/명

구분	세대수 (외국인 제외)	인구(외국인 포함)			성 비 (남/여)	인구밀도 (명/㎢)	세대당 인구	65세이상 고령인구	등록 외국인수
		계	남	여					
1963	239,624	1,480,104	748,748	731,356	102.4	199	6.2	...	1,003
1970	262,183	1,454,824	726,994	727,830	99.9	196	5.5	57,275	925
1980	291,050	1,424,785	725,079	699,706	103.6	192	4.9	75,068	702
1990	354,193	1,390,150	697,308	692,842	100.6	187	3.9	98,907	464
1995	407,664	1,396,728	700,118	696,610	100.5	188	3.4	113,792	1,268
2000	491,781	1,501,459	755,028	746,431	101.2	202	3.1	140,071	3,946
2005	547,213	1,501,674	757,848	743,826	101.9	202	2.7	168,670	12,871
2010	617,431	1,573,981	796,002	777,979	102.3	212	2.5	204,462	24,453
2013	644,062	1,600,163	809,434	790,729	102.4	216	2.5	222,188	27,431
2014	656,321	1,609,588	815,090	794,498	102.6	217	2.5	228,900	30,655
2015	669,503	1,616,589	819,031	797,558	102.7	218	2.4	234,813	32,637

자료 : 주민등록인구통계, 충북통계연보

※ 인구 = (내국인 + 외국인), 인구밀도 = 인구/면적, 세대당인구 = 인구/세대수, 세대수 및 65세이상 고령인구 = 외국인 제외

1일 **37**명이 출생
29명이 사망
24쌍이 결혼
10쌍이 이혼

부부가 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충정북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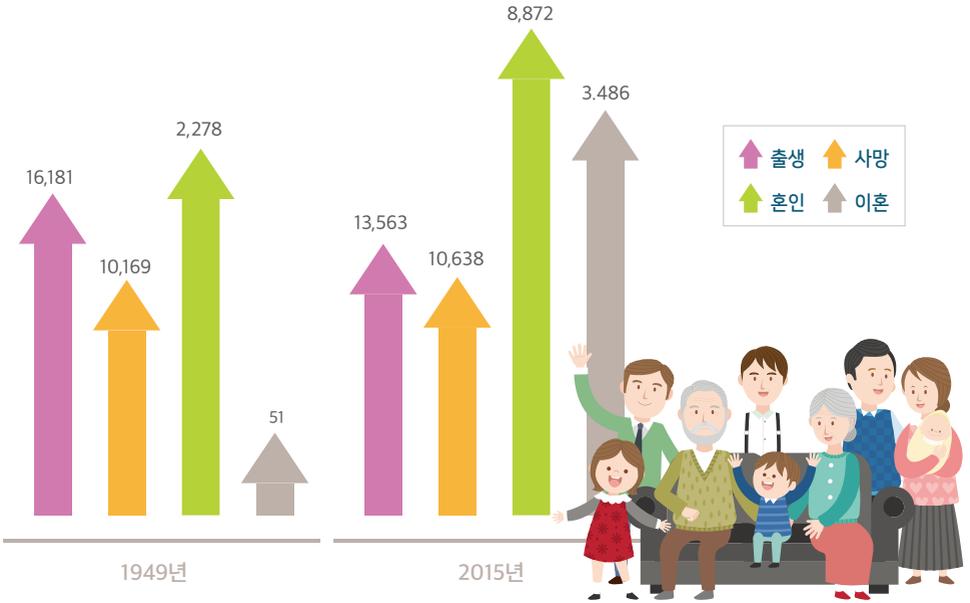


출생률, 혼인율 저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급

충북에서는 1일 37명의 아기가 탄생하고 29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결혼하는 부부는 24쌍 이혼은 10쌍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률은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망률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증가추세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학령인구 급감추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혼율은 1990년대 이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이혼율 급증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위 : 명/천

구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연간	1일	연간	1일	연간	1일	연간	1일
1949	16,181	44	10,169	28	2,278	6	51	0.1
1960	29,516	81	8,517	23	3,706	10	215	1
1970	49,991	137	12,801	35	13,096	36	857	2
1980	30,859	85	13,796	38	15,929	44	555	2
1990	17,510	48	10,830	30	12,114	33	1,086	3
1995	20,674	57	10,208	28	11,861	32	1,870	5
2000	19,471	53	10,272	28	9,586	26	3,348	9
2005	13,075	36	9,661	26	8,390	23	3,469	10
2010	14,670	40	9,825	27	9,171	25	3,554	10
2013	13,658	37	10,371	28	9,307	25	3,732	10
2014	13,366	37	10,174	28	8,774	24	3,671	10
2015	13,563	37	10,638	29	8,872	24	3,486	1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인구이동

1970년

100,041명 전입
147,916명 전출

2015년

214,626명 전입
213,188명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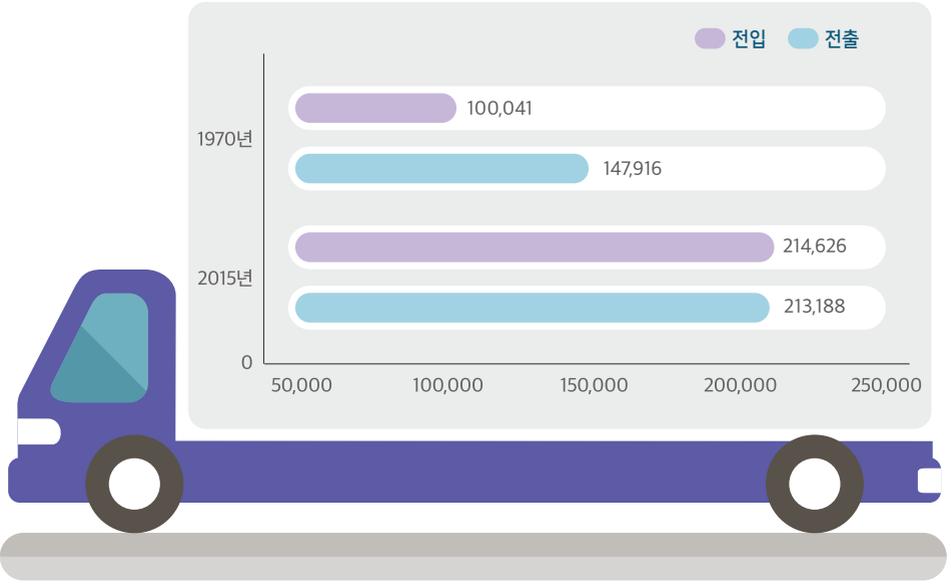
좋은 일자리를 가진
매력도, 충분!



충북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전출입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출입인구는 1980년 이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도내 이동은 역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산촌 인구감소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시도간 전출입과 관련하여 충북의 인구감소시기인 1980년대는 수도권과 대경권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심의 일자리가 많이 형성됨에 따라 최근에는 역으로 도내로의 전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단위 : 명

구분	총이동				도내이동		시도간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70	100,041	45,628	147,916	67,352	-	-	-	-	-	-	-47,875	-21,724
1980	227,621	109,935	266,206	132,344	141,794	71,730	85,827	38,205	124,412	60,614	-38,585	-22,409
1990	263,415	130,989	280,994	139,313	178,769	90,075	84,646	40,914	102,225	49,238	-17,579	-8,324
1995	249,033	125,122	245,262	123,544	171,036	86,228	77,997	38,894	74,226	37,316	3,771	1,578
2000	235,155	119,210	239,559	121,619	156,984	80,169	78,171	39,041	82,575	41,450	-4,404	-2,409
2005	235,907	118,119	240,615	121,568	157,381	79,511	78,526	38,608	83,234	42,057	-4,708	-3,449
2010	235,671	116,657	229,707	114,180	153,067	77,043	82,604	39,614	76,640	37,137	5,964	2,477
2013	215,973	106,386	212,860	105,274	139,959	70,308	76,014	36,078	72,901	34,966	3,113	1,112
2014	215,944	104,797	213,577	104,471	136,614	67,641	79,330	37,156	76,963	36,830	2,367	326
2015	214,626	104,009	213,188	104,103	133,264	66,055	81,362	37,954	79,924	38,048	1,438	-94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